김영록 지사, 프놈펜서 '아세안' 협력외교 확대 발판

亞한인회총연합·한상총연합회 총회 참석

각국 한인 리더들과 소통 네트워크 다져

프놈펜시장과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키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현지 시간) 프놈펜 다라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 한상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리더들을 격려하는 축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아시아 각국 재외한인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프놈펜시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 외교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날 프놈펜 현지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한상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리더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낯선 땅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한인 리더들 덕분에 케이(K)-푸드, 케이-컬처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는 "전남에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솔라시도'가 있고,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도 해 관련 기업의 스케일업이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초기지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달 착륙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남은 맛의 고장이자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지역이므로 많은 분이 전남을 직접 방문해 보고, 맛보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프놈펜시청에서 쿠옹 스렝(Khuong Sreng) 프놈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전남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프놈펜시는 캄보디아의 심장이자 아세안의 떠오르는 도시로 전남도와 협력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지역이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옹 스렝 시장은 "전남도는 풍부한 관광 자원과 뛰어난 농수산 기술을 가진 지역으로 프놈펜과 많은 부분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두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화답했다.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최대 경제 중심지인 프놈펜시는 활발한 개발과 투자 유치가 이뤄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의 주요 도시다. 전남도는 이번 면담을 통해 프놈펜을 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삼고 농수산물 수출 및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FC, 기업 합작 구단 전환해야"

이명노 시의원 "재정 건전화 실패"

구단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필요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에 회부되는 등 강등 위기에 놓인 K리그1 광주FC를 기업 합작 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사진)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광주FC는 운영 부실로 인한 국제 징계, 상벌위 회부, 재정 건전화 실패 등 연이은 사태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광주시가 시민구단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면 이제는 기업 중심의 운영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FC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3억원에 달하는 등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지표를 위반해 이날 상벌위 회부가 결정됐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구단은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KIA는 이미 프로야구단(KIA타이거즈)을 운영 중인 만큼 삼성처럼 야구·축구 등 복수 구단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며 "중흥건설, 광주은행과 지분을 나눠 구단을 공동 운영한다면 재정은 물론 지역민 신뢰도 함께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 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광주FC가 스스로 2부 리그에서도 자립 기반을 확보해 다시 상위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민구단 체제를 유지하되 외부 자본 유치와 공동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올해 첫 추경 예산 4천807억원 편성

본예산 比 6.3%↑…재정 효율성 강화

민생경제·미래투자 등 4대 분야 집중

광주시가 4천807억원 규모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천43억원 대비 6.3% 늘어난 8조850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민생 경제, 미래 투자, 돌봄·공동체, 풍요로운 광주 실현 등 4대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생카드 할인(134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자 지원(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억원), 구조고도화자금(100억원), 수출진흥자금(2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21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AI(인공지능) 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10억원), K-헬스(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11억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농업생태계 구축(4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선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20억원),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기술개발(1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더 촘촘한 돌봄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5억원), 손자녀가족 돌보미(2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1억원), 영유아보육료(217억원) 등을 반영했다.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천 정비(9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해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해선 'G-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49억원)을 편성하고 영산강 인근 자전거마을 시범 구축(2억원) 예산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실·국별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일부 세입 증가분, 세출 절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필수 경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며 "실·국별 자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道공직자들, 가격 폭락 양파 사주기 동참

전남도는 2025년산 양파 도매가격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12일 도청 직원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생육 시기 기상 호조로 품질 좋은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라 도매 가격이 하락하자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양파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600망(1망 당 5㎏, 총 3t) 공동 구매에 나선 것이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당 602원으로 1년 전 1천16원, 평년 970원 대비 각각 40%, 37%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가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양파 소비 진작을 위해 각 기관·단체에 국산 양파 구매 확대, 각 기관 구내식당 햇양파 및 양파 절임김치 식단 제공 등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양시원 기자

CMYK